

무등산 국립공원 10년 ... 개발·보존 기로에 서다

신양파크호텔·지산유원지 개발 방식 놓고 다양한 의견
랜드마크형 시티타워·케이블카·트램 설치 등도 제시
시민사회 환경단체 중심으로 '보존·복원 우선' 주장도

국립공원 승격 10년을 앞두고 있는 무등산이 또 다시 '개발'과 '보존'의 기로에 섰다.

무등산 인근 상인과 상당수 시민들은 무등산 케이블카, 전망타워, 트램, 신양파크호텔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지산유원지 재개장 등을 통한 지역 대표 랜드마크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부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무등산 보존·복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테스크포스를 구성, 도시철도 2호선 완공 이후 산 수역에서 충장사, 국립공원 원호 분소, 늦게 삼거리, 장봉재로 이어지는 '무등산 수순 트램'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해의 사례를 보면 대표 명산 8~9부 능선에 주먹이나 박물관이 있는 곳도 있다"며 "현재 무등산 군부대 도로에 트램을 설치해 중간에서 차도 마시고, 노인이나 장애인도 도시락을 싸서 가족과 함께 무등산을 경험하면 좋을 것"이라고 검토 배경을 밝혔다.

또 다른 쪽에선 광주를 대표할 만한 관광 콘텐츠나 랜드마크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무등산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등을 설치해야 하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지난 27일 지산유원지 인근에서 입법 동구정장, 이흥일·박미정 시의원, 정미용 동구의회 의장 및 구의원, 지역 주민·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현장 경청의 날'을 갖고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의견 등을 묻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케이블카 설치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이 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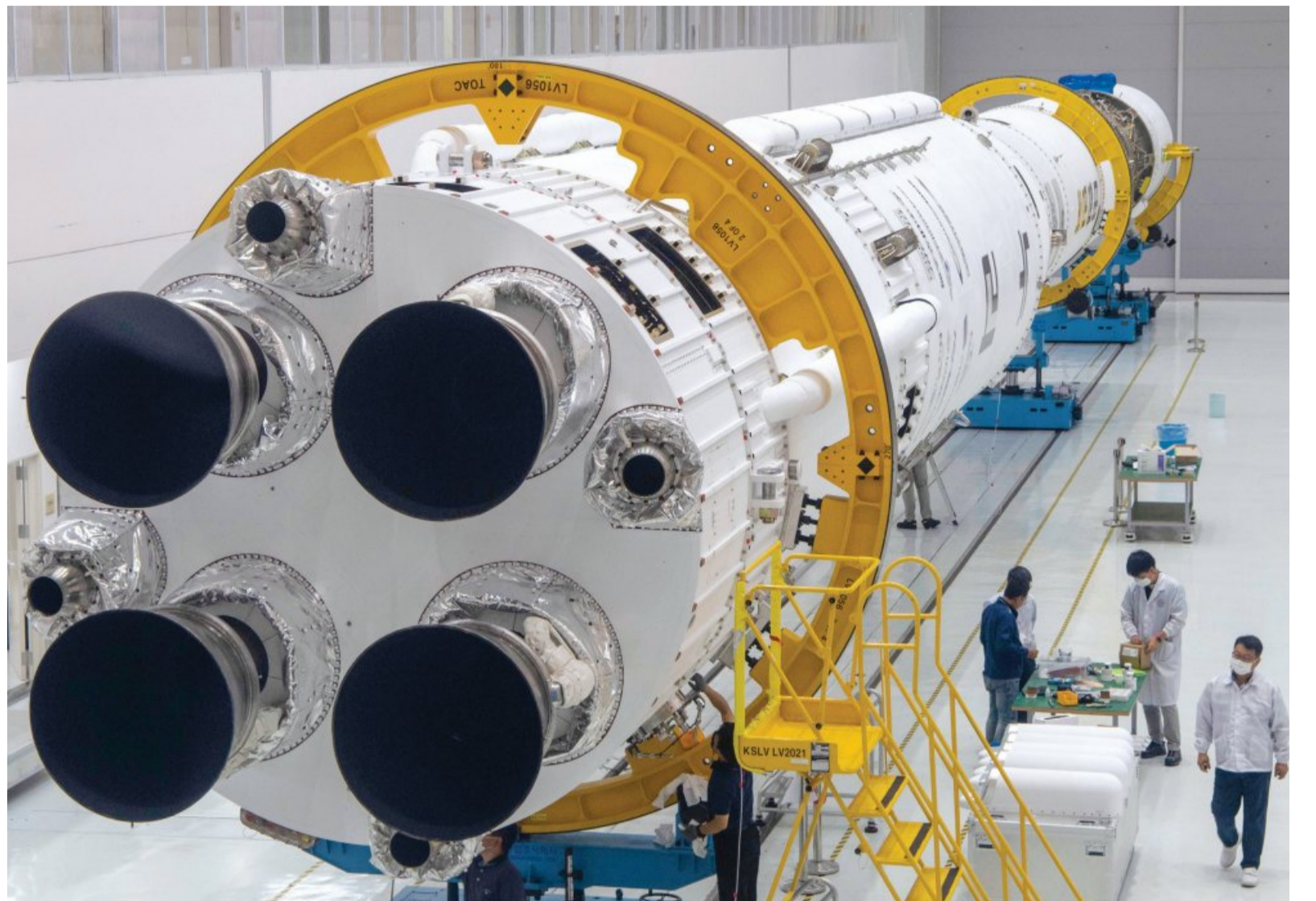
광주시 내부에선 일부이긴 하지만, 공공개발 방식으로 진행 중인 신양파크호텔 부지 내에 무등산 케이블카와 연계한 '전망 타워'를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2013년에는 광주와 무등산을 공유한 전남도에서 대형 전망 타워와 케이블카를 구상했다가 반대여론에 밀려 철회한 전례도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있었으며, 민선 8기 대표를 선출하는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케이블카 설치 등 무등산 활용 여부가 다시 공론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등산 활용 바람을 타고,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는 무등산 자락 지산유원지의 재개발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지산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업체는 일단 오는 11월 개장 목표로 놀이공원 부지 내에 바이킹 등 놀이기구를 기존과 같은 규모로 배치·운영하기 위해 관할 동구청과 최종 협의의 단계를 밟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에선 무등산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지금 무등산 정상부근 군부대로 연결되는 도로를 이용한 트램 운행은 물론 케이블카 설치 의견 등이 나오고 있는데, 훼손된 곳을 복원하자는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고, 군 부대 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신양파크호텔도 무등산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공공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0월 21일 발사 '누리호' 점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1차 발사일이 10월 21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29일 최종 작업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발사 예정일을 정했다. 발사 시각은 오후 3~7시 사이 기상 상황,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누리호 발사체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외국인·대학병원·학교 등 코로나 산발감염 지속

담양·여수·나주 등 추가 확진

광주에서 대학병원과 학교 등에서 코로나19 산발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확진자 24명이 추가됐다.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 감염 사례다. 선별 검사가 진행 중인 광산구 외국인, 광산구 제조업 관련이 각각 3명, 1명이다.

지난 28일 같은 병동의 간병인·간호조무사·환자 2명이 확진된 전남대병원에서는 이날 이 병동의 환자 2명이 추가 감염됐다.

현재까지 이 병원 의료진·환자 등 153명이 검사를 받아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는 기 확진자 관련이 7명이며, 추석 명절 연휴 영향 등으

로 타시도 확진자 관련이 4명이다. 유증상 검사자도 6명이다. 또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광산구 중학교 2곳, 남구 고등학교 1곳에서 재학생 1명씩이 확진돼 학생·교직원 등 890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으며 48명이 자가 격리됐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10명이 신

석막한 아파트 문화 - 휴먼·쓰레기 교통 ▶6면

추상미술 선구자 강용운의 60년 화업 ▶16면

여자 프로배구 광주 '시 페퍼스' 창단 ▶18면

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3070명이 됐다. 전국에서는 지난 28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2885명 늘어 누적 30만8725명이 됐다. 이는 지난 25일의 3271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일본 새 총리에 '한일 위안부 합의 주도' 기사다

10월 4일 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의 당사자인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64·사진) 전 외무상이 내달 초 일본 총리로 취임한다. <관련기사 2면>

일본 집권 자민당은 29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실시한 총재 선거에서 기사다를 27대 총재로 선출했다. 기사다는 결선 투표에서 257표를 획득해 고노 다로(河野太郎) 행정개혁 담당상(170표)을 87표 차이로 눌렀다. 기사다는 이날 총재선거 1차 투표에서 2위인 고노를 1표 차이로 앞섰으나 유효표 과반 획득을 하지 못했다. 이어 1·2위 후보로 압축해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기사다의 당선이 확



정됐다. 1차 투표는 국회의원과 당원·당우의 비중이 각각 382표로 같았지만 결선 투표는 국회의원(382표)의 영향력이 당원·당우(47표)보다 커지는 구조였다. 기사다는 1차 투표 때 국회의원 표를 고노보다 60표 많은 146표 확보해 당선을 예고했다. 기사다는 이날 30일 총재 임기를 마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뒤를 잇는 자민당 당수로 취임하며 내달 4일 소집 예정인 임시 국회에서 제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된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명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21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광장형

지구의 전환, 숨쉬는 프린지

2021년 10월 8-10일

장소 전일빌딩 옥상, 5.18 민주광장, 아시아문화전당 계단

주요공연팀 무드리스트(재즈), 이봉근과 적벽(국악), 빛고을 댄서스(스트릿댄스) 봄헤드&우카탕카(코미디 퍼포먼스)

※ 현장상황에 따라 공연 순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문화재단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